



이스라엘과 어떻게 "연결"되어야 할까? (3부)

아리엘 블루멘탈



1부와 2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경적 정의(민족, 나라, 남은 자)와, 우리 세대에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과 연결되고 있는 몇 가지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. 우리는, 로마서 11장과 에베소서 2장과 3장에 의하면, 유대인과 이방인, 이스라엘과 열방 사이의 이 관계가 부흥과 회복과 예수아의 재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함에 이르게 하는 약속을 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. 2부에서 우리는 좋기는 하지만 충만함에는 못 미치는 연결 방식을 몇 가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, 우리는 어떻게 이 충만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? 우리 세대에 그것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?

우선 우리가 충만한 연결, 충만한 "접붙임"을 찾고 있다면,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 성경적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"이스라엘"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.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 세대에 그런 한 무리의 유대인들, 즉 이스라엘인 메시아닉 유대인 남은 자들, 곧 유대인(민족)이면서 이스라엘인(나라)이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침 받은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에 따르면, 바로 이 유대인 무리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충만한 예치를 그들의 몸과 영 안에 가져다 줄 자들입니다(11:1-15).

세 겹 줄

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메시아 안에서 화해하고 연합하게 되는 신비를 "한 새 사람"으로 묘사하고, 이 "그리스도의 신비"가 이전 세대 선지자들에게는 그의 시대에 계시된 것처럼 알려지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(2:14-16; 3:1-6). 우리는 우리 시대에 대해 비슷한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우리는 우리 시대에 1세기 때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초점으로 이 신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:

- 1) 지구상의 거의 모든 족속, 방언, 나라 가운데 믿는 기독교인 남은 자들
- 2) 거의 2,000년 동안의 유배생활 후에 회복되고 독립한 (예루살렘을 수도로 둔) 유대 국가
- 3)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의 회복.

성경은, 열방의 교회가 자신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비교하여 바로 "접붙여진" 위치에 있음을 알게 될 때, 그리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모든 나라의 남은 자들과 함께 "공동 상속자, 한 몸, 동일한 언약/약속에 참여하는 자들"임을 알게 될 때, 비로소 우리가 함께 마지막 때의 충만함, 즉 부흥과 회복과 재림에 대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(롬 11:11-15; 엡 3:6). 우리는 준비 되었나요? 이것은 이미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:

- 1) 가르침: 우리는 이것들에 대한 계시가, 그것도 말씀과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필요합니다. 우리는 바울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 신비에 대해 "무지"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! (롬 11:25)
- 2) 관계: 우리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남은 자들의 지도자들과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 사이의 교제가 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. "한 새 사람"은 유대인과 이방인

믿는 이 개개인이 서로 일대일로 중요한 관계에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—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어마어마한 수와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적은 수가 이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.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곳입니다: 믿는 이들 공동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기도와 신뢰와 관계 가운데 함께 모이면, 전 지구적인 ‘한 새 사람’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.

3) 협력: 관계가 더 많아지면서 우리는 기도와 예배 컨퍼런스와 아웃리치와 미디어 등에서의 협력을 보고 있습니다.

4) 통치: 이 마지막 것은 이 자체로 하나의 글이 되어야 하지만, 저희는 근래에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질서와 영적 통치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을 회복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. 이 회복이 충만함에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‘한 새 사람’ 관계 회복이 충만함에 이르는 것과 올바르게 정렬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.

홀로코스트: 왜 유대인인가?



이 메시지에서 아셰르 인트레이터 목사님은 성경을 사용하여 유대인들이 왜 나치 독일에 의해 멸절되기 위한 표적이 되었고, 왜 아직도 미움과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.

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r2angPL33cs>

저희 팀을 만나보세요 – 앤드류



이번 주에는 리바이브 이스라엘 웹마스터인 앤드류 벤-아리를 만나보십시오. 프랑스어, 스페인어, 포르투갈어, 이탈리아어, 덴마크어,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.

<https://youtu.be/xNdm5Tezrx4>

이번 주에는 리바이브 이스라엘 웹마스터인 앤드류 벤-아리를 만나보세요!

*한국어 자막이 나오지 않을 경우 오른쪽 아래 부분의 CC 옆에 있는 "설정" 아이콘을 클릭하여 언어 선택을 Korean으로 변경하시면 한국어 자막을 보실 수 있습니다.